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이 성 희*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II. 탈북자의 자원화와 한국자본주의
의 고발 |
| II. 자본주의 체제의 노출과 삶의 이
질성 내면화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려는 시기에 와 있다. 분단문학도 통일문학을 지향하고 있는 바, 본고는 북한민의 신분에서 남한민으로 새로운 체제를 경험한 탈북자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박덕규의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되어 겪는 이질감이라는 심리적 적응의 측면과 그들이 체감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사회적 적응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새로운 분단문학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탈북자가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겪게 되는 이질감을 중심으로, 경제

* 동서대학교 강사

적 우위를 심리적 우위로 착각하는 남한민의 고압적인 자세, 그들이 일상 속에서 체득한 중간자라는 이중의 정체성, 그리고 남한민과 소통의 비공유자로서 느끼는 소외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탈북자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한국적 자본주의의 속성을 중심으로 탈북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자원화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살펴보고, 물질만능과 속물성에 둘러싸인 남한민에 대한 탈북자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본주의 제도가 펼쳐놓은 그 물망 속에서의 욕망의 공모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덕규의 소설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세계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잡종(hybrid)’의 시대다. 이분법적 척도의 이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존의 열린 성찰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기에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삶을 살펴 본 문학은 분단 극복 내지 민족 통합의 길 찾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탈북자 문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좁히는 방안, 인간적 덕성이 상실되어 가는 남한 사회의 냉철한 자기반성, 탈북자의 재교육 문제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분단문학을 넘어 진일보한 통일문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박덕규, 탈북자, 자본주의, 분단문학, 통일문학

I. 들어가며

남북한의 통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땅의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통일이다. 일반적으로 땅의 통일은 통상적이고 거시적인 통일의 최종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통일의 모습은 사람의 통일이라 생각한다. 사람의 통일이란 60여 년의 분단 기간을 통해 극단적으로 이질화 과정을 겪어 왔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통일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분단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국내외 상황을 진정한 민족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통일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절차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양 체제의 이질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자본’에 대한 문제라고 할 때, 그 양극을 모두 체험한 사람은 탈북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자본주의와 분단문학, 더 나아가 통일문학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적 자본주의의 그늘을 파헤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처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그것이 전에 없는 눈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존재가 대표적으로 탈북자¹⁾임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탈북자야말로 한국인이면서 그 자본주의적 삶을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탈북자의 삶은 다룬 소설은, 1990년대 최 윤을 시작으로 탈북자의 증가가 본격화되는 2000년대 김정현, 김영하, 김원일, 정도상 등에 이르기까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주목할 것은, 과거 ‘1세대 분단소설’이 6·25, 현대사 등의 역사적 상처와 ‘이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세대 분단 소설’²⁾은 현재 진행형인 탈북자들의 아픔과 ‘인간’에

1)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해 과거에는 ‘귀순용사’, ‘귀순자’ 등으로 불렀으나 1990년도 중반이후 일반적으로 ‘탈북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있고, 일부 탈북자들은 ‘자유이주민’으로 불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용어로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아직 통일된 용어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고, 문학적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탈북자’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용관·김병로, 『북한한걸음 다가서기』, 예술전도단, 2002, 109쪽.

2) 여기서 말하는 ‘2세대 분단소설’이란 소설 속에 등장한 탈북자가 본격적으로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소설은 이데올로기의 해체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념과 일상이 길항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본고는 박덕규³⁾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덕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몰신성 아래에서 신음하는 문화생산의 메카니즘과 문화 생산자들의 일상을 소설의 주된 소재로 삼으면서 주인공에 함

인공으로 자리잡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작품으로는 최윤의 <아버지 감시>(1992), 김정현의 <길없는 사람들>(2003), 전성태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2005), 강영숙의 <리나>(2006), 김영하의 <빛의 제국>(2006), 김원일의 <카타콤>(2006), 정도상의 <함흥·2001·안개>(2006), <소소, 눈사람이 되다>(2006), 문순태의 <울타리>(2006), 황석영의 <바리데기> 등이 있다. 소설 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영화에서도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쏟아지는 데 본고에서는 탈북소설만 언급하기로 한다. 탈북문학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고, 탈북문학에 대한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김태훈, 「‘탈북자 문학’ 한국 소설의 새 영역으로」, 조선일보DB, 2008년 11월 30일자, 김소라, 『남한의 북한인권 담론연구』, 북한대학교 대학원, 2008, 98-109쪽.

- 3) 박덕규(1958-). 1980년 《시운동》 동인지 창간호에 <낙하산> 등의 시를 발표해 시인으로 등단,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와 《한국문학》 신인상에 문학평론이 당선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1994년 《상상》에 소설 <날아라 지섭!> 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박덕규의 소설은 경쾌하고 날렵한 풍자의 서술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소비 산업시대의 문화 현상에 대한 예리한 진단을 동반하면서 강렬한 시사성을 전달하며, 그는 현대의 부조리하고 혼탁한 문화의 생산·소비 현장을 비판적으로 다루려는 작가 중의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람기획 편집부 엮음, 『한국현대문학 작은 사전』, 가람기획, 2000. 211쪽.

박덕규가 탈북자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분단문학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원일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원일과 박덕규 두 사람의 인연은 박덕규가 고3때 처음 만난 이후 당시 문학의 열성학도였던 박덕규는 자신의 시 ‘깊은 산 아버지’는 김원일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박덕규는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에 큰 감명을 받아 《마당깊은 집》을 직접 찾아다니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의 결실은 산문집 《마당깊은 집을 찾아서》로 발간되었다. 낭독의 발견, 「기억의 저편, 아름다운 상처에 대한 기록-김원일, 박덕규편」, KBS, 2006년 방송.

몰되지 않고, 경원시 하지 않고, 엄정한 눈을 가지고 주인공의 삶의 추이를 관찰⁴⁾한다는 평가를 받는 소설가다. 또한 그의 소설은 본고가 문제 삼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한국자본주의⁵⁾의 속물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덕규의 소설에서 탈북자의 남한 삶을 다룬 작품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체험한 한국자본주의 전체의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통일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문화인류학적 방법⁶⁾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원래 문화인류학적 방법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시행하는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탈북자들은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적응하였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가 사람의 통일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 믿으면서, 박덕규의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

4) 하응백, 「한 문화주의자의 글쓰기」, 『낮은 목소리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9, 65쪽.

5) 기존에 북한민이었던 탈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남한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적당하겠지만,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용어의 통일로 한국자본주의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때 자본주의 라는 말은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

6) 본고는 문화인류학자인 로저 키징의 『현대문화인류학』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시도들을 인류학적 측면에서 전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인간 생존의 문제를 제시한 ‘관점으로서의 인류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탈북자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존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로저 키징(전경수 역), 『현대문화인류학』, 현음사, 1985.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출간한 개론서인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도 참고하고자 한다.

되면서 겪는 이질감이라는 심리적 적응의 측면과 그들이 체감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사회적 적응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새로운 분단문학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본주의 체제의 노출과 삶의 이질성 내면화

2008년 현재 탈북자의 월남은 매우 빈번하고 대규모⁷⁾로 감행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구소련과 동구권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사회주의 우호경제의 붕괴, 북한의 중공업 위주 계획경제 생산성 저하, 북한 농업체제의 비효율성과 연속된 천재지변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의 다양한 원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의 경제난과 식량위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결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와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북 경제 봉쇄’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 외교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개입⁸⁾하기 시작

7) 2008년 현재 1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순호,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시공사, 2008.

8)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외 망명 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7, 12-28쪽. 80-1쪽.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43-48쪽. 미국은 탈북자 신병처리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직접 개입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로 동북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정일 정권이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국제적인 공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북한과의 대립 상황에 처할 경우 보복과 응징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사회적 통제력 상실과 심리적 이완 심화가 더해지면서 탈북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탈북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국행을 택하게 되는 대표적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과 안정된 신분보장에의 희구,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과 동포애⁹⁾ 등이다. 그러나 탈북자가 자본주의라는 낯선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사회적 통제와 순응의 압력이라는 측면에서 로저 키징은 모든 생활방식, 모든 사회체계는 내적인 모순과 스트레스를 부과한다고 한다. 집합적 행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해야 할 사람들이 자원, 신분, 계층 등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입장¹⁰⁾에 있기에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불가피하게 내면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물며 공산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더한 내적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가는 것은 이미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충격보다 덜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난민이 아닌 이산민이기에 연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갖는 감정은 이질감과 두려움 또한 공존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체제에의 배신을 감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의 타자'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되는 것이다.

자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스스로를 타자(他者)화하는 아픔, 즉 타자를 통한 스스로의 위상 정립과 맞물려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¹¹⁾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북자의 자의식도 마찬가지다. 판단의 이중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9) 위의 책, 47-50쪽.

10) 로저 키징, 앞의 책, 410쪽.

11) 고인환, 「남북문화의 이질성과 문학 교류의 방향」, 『공감과 근혹사이』, 실천문화사, 2007, 58쪽.

생활 속 감정적 분단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덕규 소설 속 탈북자들은 남한인의 불안한 시선과 생활 변화의 적응이라는 이중의 무게로 한국자본주의에 심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한다. 본고는 이 장에서 박덕규 소설에서 탈북자들이 느끼는 한국자본주의 삶의 이질감¹²⁾을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 3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우선, 경제적 불균형에서 오는 심리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계급에 따른 분화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념을 전제하면서, 재산이나 소득 또는 직업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차이를 기초로 성립하는 불평등 체제¹³⁾다. 탈북자는 한때 다른 사회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박덕규는 남한인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의 인정보다 ‘차별’적 시선에 가까움을 지적한다. <노루사냥>의 주인공 박당삼은 청진에 있는 호텔 주방장으로 일하다 1994년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다. 현행 법률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¹⁴⁾. 박당삼 또한 북한에서는 호텔 요리사였지만 남한에서는 큰 분식집 정도로 취급받던 차에, 요리학원의 홍보라는 ‘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요리 공개 특강에 나선다. 이 요리 특강에서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노루사냥>에서 보이는 남북한 현실의 집약된 불균형을 보여준다.

박당삼은 요리 내내 함경도 사투리를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 말씨를 쓰는데, 그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킁킁거린다. 또한 남한식 유머에

12) 본고의 주제가 한국자본주의를 경험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외 망명에 대한 입장은 논외로 한다.

13) 한국문화인류학회, 「차이와 불평등」,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188쪽.

14) 정원진, 「탈북자 정책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95-7쪽.

적응하지 못하고 겁먹은 눈을 굴리는 그에게 ‘나’의 남편은 ‘인민군 패잔병’ 같다고 한다. 요리 프로의 사회자 또한 박당삼이 명태 간에 붙어 있는 기름인 간유를 소개하면서 북한에서는 고위층에서나 먹는 고급 재료라는 말에 사회자를 비롯한 방청객은 모두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 <노루사냥>은 북한 탈출에는 성공하지만 ‘패잔병’의 신분 밖에 주어지지 않는 ‘노루 박당삼’을 향한 남한사회의 ‘우월식 사냥’을 보여준다.

또한 <청둥오리>에서 이 같은 의식은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라디오 프로듀서 최성규와 탈북자 김봉혁이 청둥오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최성규의 위압적이고 빈정거리는 태도에서 사건은 촉발된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니네집 안방인 줄 알아?”(중략)

“내가 니네 종이네? 아까부터 와 이래라저래라 반말이냐?”

“이 새끼 좀 봐. 먹여 살려 줬더니 행패를 부려?”

“이런 제국주의 쓰레기같은 중간나새끼래 누구 누굴 맥여 줬다고 거래?”

“뭐? 이 거지발싸개 같은 게 어디서!”¹⁵⁾ (청둥오리, 73쪽)

탈북을 계기로 만난 남북의 사람들 사이에 빚어지는 모순을 풍자적으로 그린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대립의 감정으로 서로 주먹다짐을 하기에 이른다. 최성규는 ‘니네집 안방’, ‘거지발싸개’라는 말로 김봉혁을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탈북자 김봉혁 또한 ‘제국주의 쓰레기’라고 최성규는 맞받아친다. 김봉혁은 북한에서 자본가와 자본가계급, 제국주의 등을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과 적개심을 갖도록 내면화한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성규의 발언 즉, 남한의 경제적인 우월함 과시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직한 발언은 탈북자를 대하는 우리의 부정적 자세를 가늠하게

15) 박덕규, <청둥오리>, 《고양이 살리기》, 청둥거울, 2004. 이하 소설 제목과 쪽수 표기로 각주를 대신하고자 한다.

함과 더불어 그들의 경제력에 억눌린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볼 수 있다.

탈북자를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생활은 하지만, 한수 아래라는 차별적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다툼으로 엮여진 오리탕에서 청둥오리가 솟아오른다는 다소 환상적인 결말처리는 피 흘리며 위태롭고도 위험한 비행을 하는 청둥오리를 통해 가진 자의 횡포에 익숙한 남한의 자본주의적인 발상이 탈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 상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노루사냥>과 <청둥오리>는 함께 먹으면서 친분을 쌓는 우리의 보편적 의식과 문화에서 소재를 채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을 앞둔 남북한 사람의 감정적 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곧 경제적인 불균형을 감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이중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토대는 개인적 자아 형성에서부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해 나가는 사회적 역할까지 다양한 특질¹⁶⁾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삼팔선'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이등시민'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돌하고, 경합하며 긴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일상의 전략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교류는 결국 그들에게 자신들이 중간자임을 인정하는 절차인 것이다.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은 북한에서 정치보위부에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잡는 일을 하던 염정실이 스스로 탈북자의 경로로 탈출에 성공하여 그녀의 수기를 책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후견인격인 특수 기관 수사관과, 출판사 사장 그리고

16) 한국문화인류학회, 앞의 책, 120-1쪽.

무명작가가 단합을 다질 겸 한 노래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소설의 내용이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 어울리는 염정실이지만 그녀의 마음 속 상황은 다음과 같이 독백된다.

별다른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도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있으리라고는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유, 자유,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남을 한이 없겠건만, 더욱이 풍요롭기까지 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약간의 노동력만 있으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남파된 무장공비며 각종 폭력범이 날뛰는 중에도 전쟁이나 폭력의 공포를 잊고 있어도 좋은 세상인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갑갑한 느낌은 웬일일까.(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118쪽)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남한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영위가 희박하다. 이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조건과 제약들이 이들을 남한 사회 내에서 약자로 위치 지우고, 이러한 재현이 고착화될 경우 이들을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만 유형화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들은 탈북자의 이미지가 남한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탈북자라는 딱지가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한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이미 외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정보와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칙들을 내면화하고 있다.

예컨대, 노래방이 만원이라 되돌아 나와야 할 상황에서 '이까짓 방 하나 잡을 힘이 없느냐'고 되묻는 염정실이 한국의 자본주의에도 적응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남한에서 그녀의 생활은 생존의 위협 없어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중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사회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남한인과 잘 융화되어 사는 듯 보여야 한다는 강박과 동시에 실상 북한에서 길들여진 내면의 익숙함을 위장해야

하는 두 겹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인식이 ‘무기력한 타자’라는 방식으로 일면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현실 감각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한인의 인식에서도 그들은 완전한 타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이론적으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잠재적인 간첩’이라는 이중적 시각은 존재하고 있다.

셋째, 소통의 비공유자로서 느끼는 소외감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는 집단주의이므로 학교의 학습활동이나 생활도 집단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생활 즉 집단생활을 강조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서울이 모든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탈북 이주민들이 서울을 유일한 ‘기회의 공간’으로 여기는¹⁸⁾ 것은 어쩌면 다수의견을 통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과정이다.

탈북 이주민들은 전무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한, 익숙한 그들의 집단적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나 다른 사회단체들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복지 ‘수동적 수혜자’ 이상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자들에게 교회는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물질·정신적 자원을 공급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등 다른 사회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실제적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17) 김동규, 「북한 교육학의 기본원리」, 김형찬,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198쪽.

18) 이는 첫째, 주택공급이고, 둘째,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전우택·윤덕용·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183쪽.

그러나 실상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¹⁹⁾을 통한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화 읽는 여자>의 오준태는 아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탈북에 성공하고 교회²⁰⁾를 매개로 한 남한 사람들, 사실은 북한사람들과의 교류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그러나 가정의 안정은 곧 결혼이라고 믿고 교회 사람들의 추천으로 여성들을 만나는 과정에 뛰어들면서 오준태는 상처를 입고 결국 아내를 데려온다며 다시 월북하기에 이른다. 또한 그의 아들 명수는 교회 신도들의 집과 집을 오가며 외면 받고 PC방과 학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장애를 겪는다. 탈북 과정을 도와 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종교 교리에 대한 이해도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준태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장(場)인 교회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독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미비와 그로 인한 소수자의 소외는 탈북자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인적 망을 형성하지 못해 자신처럼 북한을 떠나와 한

19) 이는 탈북자들이 어릴 때부터 종교를 전혀 접해 본 적이 없고 모든 종교는 저급한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는 교육 탓으로 종교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예배의식 등 교회의 모임 형태가 북한에서 경험한 사상학습 방법 또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황하고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를 믿을수록 주체사상에서 가르치는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거부감이 일어나 하나님이 어렵다고 고백한다.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168-9쪽.

20) 이들은 북한을 떠난 이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혹은 제 3국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는 동남아 현지의 교회 조직을 통해서, 혹은 남한에 입국한 후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교회 인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한다. 이들은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 체험과 믿음 체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크지 않았고, '같은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라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권나혜, 『남한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국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탈북자를 위해 <기러기 공화국>²¹⁾의 장용철은 사람들에게 겨울 철새가 전해주는 북한 냄새를 권하고 싶었기에 규합을 도모하고자 철새 보호구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북한이 대만에서 핵 폐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기사에 가슴이 답답해서 신문을 찢듯이 넘기다가, 스포츠 신문 신춘문에 시상식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뒤로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이 할 일은 명지호 같은 사람이거나 남한으로 넘어온 귀순자들과 함께 철새를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순화시키는 일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선언했다.(중략)남한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보호구역이면서 철새들의 보호구역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일단 조용히 사람을 모으고 보겠노라고 그는 두 손을 모았다.²²⁾

장용철은 남파간첩으로 월남, 공작선이 난파되어 행려병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살고는 있지만, 실제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박덕규는 탈북자 뉴스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그가 회사 동료에게 이름을 빌려줘 신춘문에 당선된 명지호를 마치 자신과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만난 듯 기뻐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남한사회에서 그들만이 공유한 삶의 이해 또는 소통²³⁾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장용철의 신념과 외면하는 명지호를 통해 비판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박덕규는 그의 소설을 통해 탈북자의 문제를 남한 사회의 소수자 인권 이슈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의 부적응을 일관적 정책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는 탈북자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탈북자

21) <기러기공화국>은 전체 4장에 중심인물 한 명을 화자로 배치하여 남북한 이산 가족이 철새를 이용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한다는 내용의 신춘문에 작품을 둘러싼 서로 다른 스토리가 전개된다.

22) 『특집2·21세기를 여는 한국의 새로운 소설가들/박덕규 <기러기 공화국>』, 『문학정신』, 1997 봄호, 104쪽.

23) 이들은 남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절대 짐작할 수 없는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생지옥이자 고향의 향수를 간직한 낭만적인 곳으로 묘사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를 미완의, 부적절한 정체성을 지닌 이들로 인식하게 하는 관점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더불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적 경계심을 작품을 통해 인지시키고 반성하게 한다.

Ⅲ. 탈북자의 자원화와 한국자본주의의 고발

생물학적 체계로서의 생태계보다 경제적 토대가 한 사회의 기본구조와 이데올로기들의 종류와 그 성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²⁴⁾는 것은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토대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탈북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들이 예외 없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량난²⁵⁾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데에는 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식량난

24) 로저 키징, 앞의 책, 470쪽.

25) 대부분 탈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에서 1순위로 꼽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이다.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168-9쪽. 전우택·윤덕용·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155-208쪽. 정주신,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정책과학연구』,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2006, 69-83쪽. 특히 최창동의 경우 이들의 법적 지위는 '현대적 난민'인 '정치적 환경난민'이라고 지칭한다. 왜냐하면 이 상기후, 인위적 환경파괴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불가피하게 이탈 할 수밖에 없는 21세기형 난민이기 때문이다.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103-140쪽.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35-6쪽.

과 경제난으로 인해서 촉발된 불만과 비판 의식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의문을 갖게 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와 함께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이런 사회 일탈현상과 가치관의 변화는 이미 식량 배급조차 제때에 주지 못하는 국가권위의 실추와 함께 물리적 통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탈북 루트로 주로 경유하는 중국에서 돈이 갖는 위력이 권력 기관 앞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를 알았고, 남한 사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라는 색다른 신분 또는 한국자본주의의 속성에 무사히 안착하지 못함을 역으로 이용하는 남한인의 모습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그들의 사회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민족적 당위성과 동포애적 명분도 쉽게 저버리는 남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본주의의 천박한 요소가 탈북자의 생활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탈북자의 자원화가 그것이다. <노루사냥>에서 ‘인민군 패잔병의 이미지’를 지닌 박당삼과, 익살스런 진행의 강길동, 그리고 잘 뻗은 늘씬한 슈퍼모델 다리의 여미지를 대비시키는 작가의 시선은 남과 북의 현실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북의 요리사를 강사로 두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선전을 명분으로 박당삼을 취직시킨 화자의 요리학원 또한 자본의 논리²⁶⁾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요리학원장 ‘나’의 남편은 박당삼의 존재가 오로지 ‘이용가치’의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다.

“저 자식이 뭐 써먹을 게 있다고 자꾸 끼고 노나 그래.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다가 잘 구슬려서 북한 부동산 얘기나 쓰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중략)남편은 정말 그에게 북한의 땅 얘기를 써 보라고 한

26) 고인환, 앞의 책, 96쪽.

것 같았다. 그렇게 해보겠노라던 박당삼이 하루 만에 “슬라고 보니까니, 잘 모르겠습메다” 하고는 두 손 들더라는 남편의 설명이었다.(〈노루사냥〉, 81-2쪽)

북한의 명승고적을 전부 김일성이가 다 제 별장으로 삼아 버렸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기다가 콘도를 세우고 스키장을 만들면 끝내 주는 건데…….”(중략) “텔레비전이며, 온갖 신문, 잡지에 다 나가는 거니까, 유명 인사들을 다 끌어와서 특별 시식 시간을 넣는 거야. 대기업 재벌들, 북한에 진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친구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많대구. 정치인 중에도 있고.(같은 책, 83쪽)

“이 새끼, 미친놈이잖아. 이 새끼 뺨에 우리 사업 다 망쳤어. 확, 죽여 버릴까, 이걸!”(같은 책, 91쪽)

박당삼의 순박한 모습은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는 남한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 반면, 위와 같이 이와 대비되는 ‘나’의 남편은 박당삼의 상품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부동산이야기’, ‘콘도’, ‘스키장’, ‘요리특강’ 등 박당삼을 통한 잉여가치²⁷⁾의 생산 계획을 구상하기에 바쁘다. 그러다가 박당삼이 ‘요리 공개 특강’에 초대된 월북한 북한 고위간부 아들의 요리에 생아편을 넣어 쓰러지게 만들자마자 ‘박당삼의 상품가치’는 ‘미친놈’, ‘새끼’로 급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세사람〉에서도 요리사인 주철남이 방송가에서 만나 알게 된 한 매니저 출신의 사기에 넘어가 믿고 맡긴 돈을 고스란히 날려 남한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열지 않기로 다짐²⁸⁾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함께 있

27) 잉여 가치란 마르크스의 용어이며,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자본보다 더 이윤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요리사인 박당삼의 본연의 업무 외에 탈북자라는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이용하는 ‘나’의 남편의 착취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칼 마르크스(손철성 엮음), 『자본론: 자본의 감추어진 진실 혹은 거짓』, 풀빛, 2005.

28) 마르크스가 미덕·사랑·지식·양심과 같이 상품화될 수 없고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마구잡이로 상품화한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것들은

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에서 염정실의 탈북과정을 소설로 엮는 작업에 연관된 출판사 최 사장과, 무명작가 고창규, 그리고 그녀의 탈북을 도운 김 선생의 각자 다른 잇속의 대비를 통해 탈북자를 하나의 상품성 있는 대상으로 밖에 바라보지 않는 남한인의 철저한 자본주의적 사고의 현실을 보여준다.

“여간첩 마타하리 식에다가, 애정소설 패턴을 엮는다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 여름 시장에 한번 밀어 붙여 보겠어!” 하고 어금니를 물어 보이기까지 했던 최 사장이었다. “요즘 귀순자들이 책을 너무 많이 내서 말이지요, 화제성도 점점 떨어지고 판매도 영 그래요.” 영업부장의 설명이 사실 그럴 듯하게 들려왔다. 경영 수완이 남다르다고 소문난 최 사장이 그 정도 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며 오래 계획해 온 일에 회의를 느낀다면 정말 곤란했다. 가장 현실적으로, 원고료 잔금을 못 챙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고창규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중략)한국에 와서 기자회견도 없이 숨겨져 있던 북한 사회 안전부 소속 여자 안전원의 비밀스런 공작 활동 이야기라면 먼저 나온 어떤 책들보다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소지가 분명 있었다. 먼저 언론에서 다루어 이 책의 내용을 받아 실을 거였다. 중요한 건 그 뒤였다. 이번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낼 몇 권의 책들이 실은 김 선생에 의해 관계기관에 소개되고 단체 구매될 것들이었다.(〈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112-3쪽)

자신의 직업적 소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 화폐로 환산된다. 고창규에게 작가 정신은 원고료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드는 것이고, 최 사장은 책을 투자 개념으로, 김 선생은 책이 화제가 되면 정부기관에서 다시 자신을 주목할 지도 모른다는 명예욕으로 각각 염정실을 앞세운다. 남한

“소통되었지 교환되지 않았고, 줄 수는 있었지만 팔지는 않았으며, 획득할 수는 있었어도 사지는 않았던” 것들인데, 그는 이런 것들까지 사고팔게 된 자본주의 사회를 ‘보편적 타락’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홍성욱, 『21세기에 다시 읽는 칼 마르크스』,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안그라픽스, 2003, 109쪽.

사회에서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탈북자들은 자본의 생산을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탈북자들 또한 그들의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상과 물질중심주의에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그것이 둘째, 물질만능의 역겨움과 속물성이다.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속물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박덕규는 한국의 단란주점에 주목한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를 알려면 한국의 단란주점에 가면 된다.(중략)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홍콩도 미국도 일본도 한국에서의 변화만큼 급격하고 휘황찬란하지는 않았다. 머리 위에서 현란하게 돌아가는 미러볼하며, 색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화면 배경,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팡팡팡 울려 대는 음악소리며,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치어질처럼 테니스공처럼 튀어 다니는 접대부 아가씨들, 그런 여자를 껴안고 겨드랑이나 유방을 집적거리 가며 짹짹거리는 사내들, 잠시 앉아서도 어느새 수십 병씩 해치우는 주량들, 아직 술과 안주가 잔뜩 남아 있는데도 툭하면 들어와 재떨이를 교환하면서 더 주문할 것을 종용하는 웨이터, 마침내 폭탄주가 돌아가고 누가 손님이고 누가 접대부인지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잔지 누가 선배고 누가 졸병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 와서, 누구는 쓰러져 자고 누구는 싫다는 여자애를 침을 질질 흘려 가며 빨아대고 누구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나가 버리고 누구는 그래도 무슨 질서를 잡아 보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구령을 외쳐 대는 이 기상천외한 풍습을, 이 나라 방방곡곡 사람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115-6쪽)

인간의 욕망이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살아남아 있는 모든 인간들은 끝없는 편리와 끝없는 풍요를 향해 달리는 질주족들이었다. 인간으로서의 견딜 수 없는 땅을 벗어나서, 이제 마음놓고 숨쉬고 사는 땅에 와서는 더욱 더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염정실이나, 굶어 죽을 염려까지는 안 해도 되는 처지이면서도 하염없는 공복감에 시달리는 고창규 자신이나 별다를 게 없었다. 빌어먹을! 아직도 제가 무슨 대단한 기관에

있는 몸인 줄 착각하는 김선생이나,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부를 획득해 보려는 최사장이나 모두가 그런 족속들이었다. 이 세상 모두가 49호 병동 그 자체였다.(위의 책, 124쪽)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에서 탈북자 염정실의 눈에 비친 한국자본주의의 모습은 ‘무장공비가 몰려온다 해도 환락에 열중할’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염정실은 살아남아 있는 자체의 의미를 몸소 체험한 인물로 한국에서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끝없는 편리와 끝없는 풍요를 향해 달리는 질주족들’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고창규는 쓰고 싶은 글만 쓰겠다고 젊은 날의 패기를 팽개치고, 죽어도 그따위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글이 아니면 한시도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해 있으며, 최 사장은 힘을 잃은 김 선생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박덕규는 이를 통해 물질 만능의 쓸쓸함과 자본주의 일상의 속물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49병동은 성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아넣을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에 등장하는 사람들 즉,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땅을 벗어나서, 이제 마음 놓고 숨 쉬고 사는 땅에 와서 더욱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염정실이나, 굶어 죽을 염려까지는 안 해도 되는 처지이면서도 하염없는 공복감에 시달리는 대필 작가 고창규나 아직도 대단한 기관에 있는 몸인 줄 착각하는 김 선생이나,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에게 빌붙어서 뭔가 부를 획득해 보려는 최 사장이나 모두가 49병동 그 자체임과 더불어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삶을, 박덕규는 탈북자들의 현실과 포개어 놓는 것이다.

<기러기 공화국>에서는 남파 공작원출신으로 한국자본주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과 탈북자들이 함께 일한 ‘철새들의 보호구역’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용철과 부패한 교육 현실과 가정의 인락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대학 강사 이진수와 운동권

출신으로 이미 달라진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 앞에서 이념의 실종 상태를 스스로의 심각한 의식분열로 드러내는 조동엽 등이 각각 작중 화자로 등장한다. 조동엽은 한때 민족시인과 자신의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이론에 경도되어 운동권에도 몸담았으나, 소박하게 살고자 감행한 중국행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환상과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후회를 시작한다. 또한 이진수는 임용을 위해 가방에 돈뭉치를 준비하고 다니는 지식인이자 시대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나약한 소시민의 행태를 보인다.

“나도 상금 한 번 받아서 이런 미인한테 술 한 잔 샀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김 청 기자의 야릇한 농에 이진수를 비롯한 몇 사람이 어색하게 소리 내 웃고 있었다. 자본주의란, 저런 값싼 모자와 귀걸이를 하고서 귀부인 멋을 내는 천박한 여자들을 양산하다가 멸망해버릴 거라고 조동엽은 진심으로 소리치고 싶었다. 왼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면서 열변을 토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기러기 공화국>, 91쪽)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뒤이어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 더 높이 공중으로 치솟게 된 자신의 가방을 힐끔 쳐다보고는, 묘하게 웃음 띤 얼굴로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고 있었다.(중략)그러는 동안 사내의 검은 가방 속에서 함께 뿔어져 나온 종이뭉치 하나가 공중으로 높이 솟더니 갑자기 수많은 종이쪽으로 풀어져 흩어지기 시작했다. 지폐였다. 내리는 눈송이 속으로 흩어진 종이돈들은 마치, 갑작스런 방화에 놀라 저수지 상공으로 날아오른 새들처럼, 수천 마리 기러기 떼처럼, 겨울 도시 허공을 날아가고 있었다.(<같은 책>, 106쪽)

조동엽은 사회주의의 실종상태인 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진수는 자신의 학문이 돈과 교환되는 지점에 비애를 느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본주의 질서의 일탈을 도모하지는 않는다. 박덕규가 이진수의 죽음 장면에서 날리는 종이돈을 기러기로 묘사하는 것은, 종이

돈 공화국을 시는 우리에게 겨울 상공을 가르는 기러기 공화국을 통해 돈의 위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비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해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장용철의 순수한 시선을 속물인 이들의 시선과 대비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박덕규는 그의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통해 양심과 동포애를 쉽게 저버리고 욕망의 공모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진정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에서 온 탈북자의 시선을 투사(透寫)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내리게 한다.

IV. 나오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려는 시기에 와 있다. 분단문학도 통일문학을 지향하고 있는 바, 본고는 북한민의 신분에서 남한민으로 새로운 체제를 경험한 탈북자에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는 생산 경제의 급속한 악화를 수반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조건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정부의 관리 체제가 느슨해지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비공식적 교류가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 내에서 담론의 변화 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탈북이 가속화되는 원인의 커다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존재가 남한 사회에, 혹은 통일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탈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지한 성찰을 해 온 소설가 박덕규를 통해 남한의 자본주의 성격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본고는 새로운 체제에서 탈북자의 이질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에 직면해서 발견한 우리의 모습을 사회적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그들이 갑자기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겪게 되는 이질감을 중심으로 경제적 우위를 심리적 우위로 착각하는 남한민의 고압적인 자세, 탈북자 일상 속에서 체득한 중간자라는 이중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만의 또는 남한민과의 소통의 비공유자로서 느끼는 소외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통의 양상은 남·북한의 삶의 이질성의 현황을 단면적으로 드러내 주는 실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한국적 자본주의의 속성을 중심으로 탈북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자원화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물질만능과 속물성에 둘러싸인 남한민에 대한 탈북자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본주의 제도가 펼쳐놓은 그물망 속에서의 욕망의 공모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덕규의 소설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물론 박덕규의 소설적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첫째, 엽편소설(minifiction)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여 함축적인 표현과 무한한 상상력을 맛보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극단적인 결말처리 부분에서 미숙함을 노출한다. 둘째, 등장인물의 시선을 분산하는 연작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의미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세계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잡종(hybrid)’의 시대다. 이분법적 척도의 이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존의 열린 성찰로 발상

을 전환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기에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삶을 살펴본 문학은 분단 극복 내지 민족 통합의 길 찾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탈북자 문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좁히는 방안, 인간적 덕성이 상실되어 가는 남한 사회의 냉철한 자기반성, 탈북자의 재교육 문제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분단문학을 넘어 진일보한 통일문학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덕규, <노루사냥>, <청둥오리>,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기러기 공화국>,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 _____, 「특집2·21세기를 여는 한국의 새로운 소설가들/박덕규 <기러기 공화국>」, 『문학정신』, 1997 봄호, 73-106쪽.
- 김태훈, 「'탈북자 문학' 한국 소설의 새 영역으로」, 조선일보DB. 2008, 11월 30일.
- KBS, 「기억의 저편, 아름다운 상처에 대한 기록-김원일, 박덕규 편」, 『낭독의 발견』, KBS, 2006년 방송.
- 가람기획 편집부 엮음, 『한국현대문학 작은사전』, 가람기획, 2000. 211쪽.
- 고인환, 「남북문학의 이질성과 문학 교류의 방향」, 『공감과 곤혹사이』, 실천문화사, 2007, 58쪽.
- 권나혜,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권영민 편, 『한국 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출판부, 2004. 321-2쪽.
- 김소라, 『남한의 북한인권 담론연구』, 북한대학교 대학원, 2008, 98-109쪽.
- 김재홍·홍용희 편저, 『그날이 오늘이라면-통일시대의 남북한 문학』, 청동거울, 1999.
- 로저 키징(전경수 역), 『현대문화인류학』, 현음사, 1985. 400-470쪽.
- 박은주, 『최근 탈북자 국내·외 망명 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7, 12-28쪽. 80-1쪽
- 오인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35-6쪽.
-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전우택·윤덕용·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7권 제1호, 2003, 155-208쪽.
- 정원전, 「탈북자 정책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95-7쪽.
- 정주신,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정책과학연구』, 단국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2006, 69-83쪽.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168-9쪽.
- 조용관·김병로, 『북한한걸음 다가서기』, 예술전도단, 2002, 109쪽.
- 최순호,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시공사, 2008.
-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103-140쪽.
- 칼 마르크스(손철성 엮음), 『자본론:자본의 감추어진 진실 혹은 거짓』, 풀빛, 2005.
- 하응백, 「한 문화주의자의 글쓰기」, 『낮은 목소리의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9, 65쪽.
- 한국문화인류학회, 「차이와 불평등」,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188-121쪽.
-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43-48쪽.
- 홍성욱, 「21세기에 다시 읽는 칼 마르크스」,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안그래픽스, 2003, 109쪽.

<Abstract>

The Shadow of Korean Capit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 With a focus on the novels by Park Deok-gyu -

Lee, Sung-He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novels of Park Deok-gyu, who had reflected North Korean defectors in a continuous and serious manner, and thus to look into the nature of Korean capitalism.

First, it was observ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eveloped a sense of difference suddenly being exposed to capitalism. Mistaking their economic superiority as psychological superiority, South Koreans treated them in a high-handed manner. Liv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ay after day, they developed a double identity as man-in-the-middle. In addition, the absence of a social network between South Koreans and them made them feel alienated. The conflicts and hardship they feel in the South Korean society clearly reveal the heterogeneous aspects of lif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reviewing the nature of Korean capitalism from the viewpoi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vestigator showed that it was pariah capitalism that treated North Korean defectors as a product and was obsessed with turning them into resources. The critical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look at South Koreans, who were surrounded by pleasure and materialism, offered an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on how we looked.

Literary works that depict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ill play a very critical role in overcoming the sepa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finding ways to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In future, the literature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expand into advanced unification literature beyond separation literature by searching for the ways to narrow the cultur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awareness of those issues, encouraging the South Korean society that's losing human morality to engage in strict self-reflection, and probing the matter of reeducating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 Park Deok-gyu, North Korean defectors, capitalism, separation literature, unification literature